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겁없이 뛰어든 노당합격기



박 병 언

- 1973년 11월 생
- 서울 성남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파 수료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 2월, 법에 관심이 있어 방송통신대학교서 공부를 하여볼까 하여 학교에 문의하니 이미 입학시즌이 지나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으니 신림동 사법시험강의를 들으면 방통대에 가는 것보다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신호진 강사님께서 “공부방법만 잘 잡아 2년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한번 해보자 싶어 수험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 첫 번째 1차시험(제49회 1차)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에게 찾아가 책을 뭘 보면 되냐고 했더니 헌법은 정회철, 민법은 김형배-권순환강의, 형법은 신호진 요론을 보라 권해 주었습니다. 헌책방에서 책을 사다가 집에서 민법부터 읽어 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가있는 후배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니, 강의테이프를 구해다 8월까지 두 번을 듣고, 9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놓고 틈틈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인터넷 강의를 구입해서 집에서 강의를 들으며 책을 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학과목 35학점을 따야했습니다. 독학사 2단계 시험이 6월에 있어서, 강의를 6월 진도까지 절반까지만 듣고 혼자서 두 번을 더 읽고, 8월에 있는 독학사 3단계 시험 때 나머지 절반을 듣고 또 두 번을 더 읽고 시험을 쳤습니다.

2단계 시험은 네 과목 응시해서 두 과목만 간신히 패스했는데, 이제 3단계 시험에서 5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되어 7월부터 신입동에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독학사시험 유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인지 무난히 35학점을 따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 내내 가장 기분 좋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영어자격도 준비해 놓고 법학학점도 준비되어 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는 되었는데, 과연 본선은 치를만한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치는데 어떤 날은 510여 명 중에 500등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보다 못 본 10여명과 함께 술이라도 마시고 싶더군요.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시험을 쳐서, 진도별 모의고사는 빠지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진모 전에 세 번, 진모 때 한 번, 진모 끝나고 세 번, 이렇게 7회독을 하고 시험을 치러러 갔습니다. 시험 전날 꼬박 밤을 새고 비몽사몽한 가운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문제도 헛갈리고 시간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세과목 모두 50점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II. 두 번째 1차시험(제50회 1차)

나름대로 성실하게 1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평균 50점대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안에 끝내기는 힘들겠구나, 1차가 이렇다면 2차 역시 잘 해야 채서 때 될 것이다 - 수험기간이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 초 2주 정도 걸

려 49회 1차 문제를 복기했습니다. 학원에서 알려진 정답이 아니라, 저 혼자 기본서를 찾아가며 복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기본서들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이때 연습장 한편 분량으로 49회 복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의 1년 내내 생각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또, 회독수에 연연해서 눈에 바르기만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분명히 O, X를 갈라낼 수 있는 분명한 공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제일 짜증났던 과목이 형법이었기 때문에 형법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위법성조각사유의객관적전제사실의착오'가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임웅 교수님 책을 잡았는데, 번역투의 문체가 아닌 한글로 씌여 있어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강의는 이제철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로서는 하늘에서 선물로 떨어진 것 같은 강의였습니다. 강의 듣다가 작년에 저를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 강의를 정지시켜 놓고 방바닥을 혼자 구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 수험기간동안 가장 큰 도움을 준 최재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현이는 학교후배인 김남주변호사의 후배인데, 그전에 합격해서 유예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스터디를 해보고 싶어 연락을 했다가 스터디가 깨지면서 일주일 동안씩 제가 모르는 것을 표시해 가면 답을 해주는 식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재현이는 성격이 좋아서 귀찮을 수

도 있는 매주 만남을 그해 말까지 계속 이어 주었습니다. ‘질문할 사람이 있다는 것’ - 너무나 든든한 변화였습니다. 일주 일동안 재현이한테 물어볼 거 만드느라고 공부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재현이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재현이가 저를 만나자 마자 한 컷 질문인 ‘부진정부작위법이 왜 인정되는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기억납니다. 땀만 빼질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7회독을 한 것이 두 해 째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그해에는 눈에 발라두었던 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진모 전까지 형법은 임용, 이재상 교수 기본서, 이재상교수 사례집, 이재철 강의를, 민법은 김준호저(개인적으로는 민법 조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권순환 요론집중강의를, 헌법은 정회철 기본서, 정회철 판례집을 읽고 다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시작했습니다(모의고사반). 2년차 때에도 진모는 민법 1회부터 노동법 마지막 날까지 전회 출석했습니다. 진모 끝나고는 14-7-2 정도의 느낌으로 3회독을 했습니다. 작년 경험상 너무 단권화 하려고 노력하고 눈에 바르기 보다는, 시험 전 1주일 동안 네 과목을 볼 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차 시험은 82점 가량 나왔습니다. 붙었다고 보고, 바로 초시준비를 시작했습니다.

III. 첫 번째 2차시험(제50회 2차)

수험생들이 가장 들뜨는 시기가 처음 1차 붙고 2차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4법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더듬거리는 느낌으로 초시준비를 했습니다. 민소 이창한, 상법 김혁봉, 행정법 김기홍, 형소법 이지민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연대에 갔다가 민소 손한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매료되어서, 손교수님 강의와 민법 안춘수 교수님 채권총론 강의를 청강했습니다. 민법 제 390조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처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안춘수 교수님 강의를 청강하던 중 스승의 날에 강의를 있어 작은 화분을 사드렸는데, 참으로 싸구려 화분인데도 수업이 끝나고 소중히 가져가시는 모습에 감동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은 대충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행정법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홍정선 저를 읽다가 밤에 고시촌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중앙대에서 2차 시험 4일을 치르고, ‘모든 합격생들은 체력적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며 재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민형제의 4과목 과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시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준비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시험이지만, 재시를 노리고 회독수를 늘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IV. 두 번째 2차시험(제51회 2차)

재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저는 재시에서 낙방했습니다. 특별히 슬럼프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다. 3시를 준비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남들 다 듣는 학원 7법 강의를 듣고, 시험을 꼬박 꼬박 치고 1순환을 보냈습니다. 1차를 거치면서 이제는 법서를 읽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 졌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1순환 때는 가능하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로 기본서를 삼았습니다. 이시윤(민소), 정찬형(상), 홍정선(행정), 이재상(형소), 김형배(민법). 형법은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못 정했습니다. 1순환 때 이인규를 듣고 2순환때부터 신호진 요론에 표시를 해가며 단권화를 했는데, 내공도 별로 없으면서 두꺼운 책에 단권화를 하다보니 오히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요론이 두꺼운 것 외에 2차용으로 부적합한 책은 아닙니다). 헌법도 1순환을 듣고 나서 정회철 1차 교재에 단권화를 했었는데, 이도 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순환은 강의를 안 듣고 혼자 집에서 했습니다. 차분히 혼자 책을 읽어서, 3순환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민소의 병합·공동소송, 상법의 어수, 형소법의 전문법칙 등을 신경 써서 공부했습니다. 2월이 되자 마음이 바빠졌고, 남들이 말하던 '재시는 후사법 하다 기본삼법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느껴졌습니다. 헌민형이 자꾸 날림이 되어 가는 것이 어제 째째했습니다.

그렇게 3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교수모강을 따라갈까, 신림동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신림동 3순환을 택했습니다. 주 6일 시험은 체력적으로 너

무 지치는 일정이었습니다. 학원시스템은 일단 '그 강사가 빼먹은 곳에서 나오면 안되는'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을 채워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 시간짜리 시험만 하루걸러 응시해서 주3회 시험만 치시고, 한 시간짜리 시험은 목차만 잡아보는 식으로 체력안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은 집에서 3회독을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역시나 힘든 4일이었고, 중간에 링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집에 와서 법률저널 2차게시판에 들어와 보니, 이것 저것 못 쓴 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게시판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과 코피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던게 기억납니다.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자 뭐가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시작한 이후 계속 달려왔다는 생각에 여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좀 여유 있게 지내다가, 9월이 되자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라도 따라가며 공부하자 싶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 때 전주 여자친구집에 내려가 함께 발표를 봤는데,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올라와 3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V. 세 번째 1차시험(제52회 1차)

어쨌든 1차를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기에, 기본서 1회독 하고 문제집 한번 풀고, 기출문제 풀면서 막판 3회독 하고

들어간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1차용 교재들을 꼼꼼히 정독해 들어갔습니다. 권순한 요해를 발표때까지 반쯤 봐두었는데 발표 후 나머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웅 총론과 신호진 요론, 정회철 저까지 보고 나니 12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처음 1차 때 보던 거 봐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최신 판례 정리하기가 오히려 복잡해서 차라리 새 교재를 택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형법만 전에 보던 걸로 하고 그간의 판례를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작업량이 많아서 후회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 여 걸쳐 민법은 교재만 다시 1회독 하고(적당한 분량의 문제집이 없었습니다.) 형법은 신호진 진모(880제), 헌법은 정회철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주마다 기출문제집 1년분 정도 풀어가면서 시험때까지 7-3-2 정도로 3회독을 했습니다. 제시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느 정도 시험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서, 확실히 전보다는 실력이 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발인원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고 오니 83점정도 나오길래 불었다 생각하고 바로 3시 준비로 들어갔습니다.

VI. 세 번째 2차시험(제52회 2차)

제시 때 뭐가 문제였을까? 오래 고민해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3시를 위해 1차 준비할 때부터 내내 고민해 봐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안지 열람도 해보고, 나름 고시계의 교수님들 강평, 주

변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본 결론과 발표 이후 점수는 또 달라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리한 결론은 첫째, 양을 줄여야 한다. 둘째, 암기해야 한다. 셋째,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1) 첫째, 기본서와 사례집을 둘 다 볼 수 없으니 차라리 사례집만 보는 식으로 ‘한 권만’ 택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 때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학교 교수모의고사를 따라가면서(주4회 시험이라 체력적으로 적당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7법 중 6법은 사례집으로 정리했고 형소법만 기본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수모의고사는 신림동 3순 환과는 달리 주제가 등성등성합니다.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느껴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사례집은 이창한, 황의영, 김연태, 이재상(형소), 민법 백태승, 형법 이재상(교수), 정회철 이었습니다. 3시로 시험을 치다 보니 내용은 대충 이해도 되고, 또 시험에 나올만한 주요 쟁점은 사례집에 거의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정 불안한 것은 사례집에 적어 넣었습니다. 또, 시험이 사례형으로 나오니 문제 유형에 적응하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법을 백태승교수님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저로서는 일단 분량이 적고 또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어 나름대로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3순환 끝나고는 '사례집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집에 스스로 A급 주제들을 표시해가며 공부하고 진짜 막판에 '이게 나올 것이다' 싶은 주제들을 A4 한 장으로 주제의 제목만 정리해 봤는데 과목별로 20여개 내외의 주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한 두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손한기 교수님의 말씀대로 사법시험 2차시험은 구석진 주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주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또, 학설이 대립하는 경우 견해대립을 소개하고 그 중 하나의 결론에 따라 사안을 적용해 나가는 전통적인 시험유형도 있지만, 그야말로 실무가시험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법정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를 서술하는 문제도 유력하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52회 민법 제3문의 임대차문제나, 형소 제1문 구속기간 계산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도입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연수원에 와보니 검찰실무에서 구속기간의 만기는 영장발급받으면서 달력에 가장 먼저 표시하는 중요사안이고, 또 최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도입되면서 절차의 적법여부가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군요. 이야기기가 좀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양을 줄였습니다.

(2) 둘째, 이해했으면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 때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던 후사법이 회독수를 더하면서 이해되는 것이 즐거워서 마냥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초시 때 신림동을 배회케했던 행정법 책이 이해되는게 좋아서 '이 주제 나오면 이렇게 쓰겠노라'하며 책에다 열심히 '검토' 내용을 적어두곤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하나도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책 서너번 읽어본 수준으로는 쟁점이 A인지 B인지도 헷갈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넓게, 어설피게'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좁게=주요 주제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3시 때는 판례만이라도 정리하자는 생각에, 사례집에 나와 있는 판례들 중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례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스프링노트에 따로 적어 나갔습니다. 신기하게 각 과목마다 100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오더군요. 쓰면서 공부도 되고, 틈틈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 세 번째,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제시 때는 나름대로 소수설을 많이 따라가려 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시를 치며 생각해 보니, 우선 쟁점을 맞추고, 쟁점의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소개한 후에 문제의식을 드러내야 하는데, 문제의식만 쓰고 나온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리의 설시가 빈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제시 때 (51회) 형소법 2문의1에서 전문법칙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검사 측 주장이 문제

있다는 내용만 잔뜩 쓰고 나서 사안에 적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우선 판례가 임의성의 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써야 할 것이고(이 판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문증거의 정의에 대해 쓰면서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한 사실임에도 전문법칙의 범주에서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논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는 나중에 쓰고, 우선 '정답'을 가능한 정확히 써야 하는데, 거꾸로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시 때는 우선 쟁점을 정확히 찾고 기본적인 법리를 잘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 15일쯤 너무 무리하고 긴장한 나머지 학교에서 쓰러져서 집으로 돌아와 병원을 오가며 2주정도 누워있었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게도 되나 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일에 많이 놀래고 지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에 이상은 없다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은 쳤는데, 상법을 치면서는 쓸 힘이 없어서 1문 써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손이 빠져라 쓰고 있는데 멍하니 교실에 앉아 있자니 허탈했습니다. 그냥 쓰는대까지 쓰다가 나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어찌 민법 3문 시간까지 왔는데, 또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들어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쓰고 나니 시간이 10분 남아서 남들 쓰는 거 보면서 앉아있던 생각이 납니다. 책은 양을 많이 줄여 놓아서 한번 씹은 훑어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험 치르고 나서 집에서 폭 쉬면서, 4시 준비한답시고 강의 듣고 있었는데, 같이 시험 본 동기에게서 붙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평평 우시는 어머니 안아드리고..... 수험생활이 끝났습니다. 애인도 붙었다고 전화했더니 믿지를 않더군요.

VII. 마치며

3시를 치르며 체력적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3시 치느라 힘들었다' 얘기를 연수원와서 하곤 했습니다. 반응은 싸~했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죠.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참 많은데..... 그리고 보니 다들 각자의 수험생활을 견뎌내고 합격하기까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얘기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 저 혼자 공부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고, 주변의 도움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살피주셔서 않았다면 수년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에 병원인세를 지고 있을 때 마음고생 하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진도가 밀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애인을 잘 참고 기다려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사법시험지원팀의 김대영 팀장님, 귀찮은 일 마다않고 도와주신 법현학사의 김현업형계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전합니다.